

올해는 더 풍성해진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문화공간이룸서

환경·청소년·여성·장애·지역 '키워드'

오는 22일부터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공간이룸에서 매일 넷째주(목, 금) 총 7회의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공연이 열린다.

관객들로부터 작년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 이번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를 모으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해, 다양한 테마를 담은 명화와 화가, 클래식 작곡가와 음악을 접함으로써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문화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공연은 22일 첫 공연인 고보연편을 시작으로 총 7편의 공연이 각기 다른 키워드와 함께 다양한 주제로 준비돼 관객들에게 지적 만족감과 더불어 음악적인 풍성함으로 더 큰 만족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을 키워드로 하는 첫 번째 순서는 폐자재로 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고보연 작가의 작품 이야기와 함께 이영신(피아노), 임영주(바이올린), 박재은(첼로)의 피아노 트리오 연주로 진행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청소년'을 키워드로 하여 영화 매트릭스, 아바타 등 청소년에게 영감을 주는 현대적 감각의 예술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야기와 함께 영화나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이웃집 토토로', '캐리비안의 해적' 등의 작품이 연주되며 7편의 공연 중 가장 많은 6인조 앙상블로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버금가는 연주 효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욱(기타), 신이나(바이올린), 송동준(바이올린), 김주빈(첼로), 송진경(피아노), 이도경(소리)의 전복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청소년'을 키워드로 하여 연주 프로그램 구성하였으니 여름 방학을 맞이한 도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9월 26일에는 청각장애를 딛고 한국미술계에 커다란 족적과 영향을 남긴 거장 김기창

과 그의 부인 박래현 화가를 소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널리 알려 이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의 작품에서 풍기는 한국적인 분위기에 맞게 김용주(대금), 임재경(소리), 김태훈(기타), 정술(타악) 등의 연주자들을 섭외하여 요즘 떠오르는 퓨전국악 DoanRazi, 놀이터, 액맥이 등의 다채로운 연주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9월 27일 공연이자 키워드 '여성' 편으로 독립적인 예술가 정신을 가진 천경자편은 특별히 올해가 천경자 화가의 탄생 100주년의 해여서 더 의미있는 무대이다.

천경자 화가의 진품 미술 작품들과 유품들의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천경자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정애련 작곡가가 만든 곡이 연주된다. '한 여인의 전설', '별 개는 밤' 중 '한 여인의 전설'은 천경자 화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김생기 대표가 작품에 영감을 받아 가사를 붙이고 정애련 작곡가가 작곡해 탄생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의 취지와 맞게 더욱 의미있는 연주곡이라 할 수 있었다.

천경자편에서는 신진희(메조소프라노), 이대혁(베이스), 이윤정(피아노), 이영신(피아노) 4명의 연주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10월 24일 공연인 '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모드루이스편은 이윤정(피아노), 장소현(피아노), 나영오(테너), 김지수(바이올린), 양신영(첼로) 등 두 번째로 많은 연주자들이 출연해 현악 앙상블로 애니메이션 OST, 피아노 솔로곡, 성악 솔로곡 등 클래식과 유명한 애니메이션 OST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객들이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천경자편 이외에도 같은 '여성'을 키워드로 한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공연인 프리다 칼로편에는 이주용(피아노), 박찬호(바이올린), 강하연(첼로)의 '트리오 숲'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 자아의 발견과 표현, 여성성과 정체성 탐구, 용기와 저항에 대한 영감과 여성의 내면을 표현한 그녀의 작품들에 열정적이고 복잡한 삶을 반영하는 현대적이며 역동적인 느낌을 작곡가 A. Piazzolla의 곡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포스터

총 7편 공연... 주제별로 진행
화가들의 작품 전시도 병행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재미있는 이벤트 등도 진행

들로 'Oblivion', 'Liebertango' 등 클래식 중에서도 현대 곡에 속해 있어 프리다 칼로 작품들의 느낌을 표현한 곡 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의 마지막 11월 29일 '지역'을 키워드로 하는 박안나편은 주인공 박안나 할머니를 직접 무대로 초대하여 진행되며 박안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인 '하숙생', '그때 그 사람' 등의 가요를 이상욱(기타), 지혜(방승민겸가수), 정효준(터블베이스), 정명준(드럼) 4인 밴드로 만나 볼 수 있고 연주가 끝난 뒤에는 박안나 할머니의 스토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각 편에 맞는 형형색색의 작품들과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어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 워터밤 페스티벌

15일부터 4일간 개최

남원시는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해 요천 둔치 일대에서 워터밤 페스티벌 축제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여름철 축제로 작년 처음 개최한 요천 비치페스티벌이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축제는 색다른 모습의 워터슬라이드, 조립식 수영장, 워터풀장, 유아용 풀 등 다양한 시설 구축으로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형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꽃이 운명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축제장 내에서는 매일 어린이공연, 댄스파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17일 18일 저녁에는 무더위를 날릴 특별공연(울랄라세션, 노라조)이 준비돼 있다.

또한, 맥주축제를 오전10시 30분부터 오후9시까지 개최, 시원한 생맥주를 1잔당 2,000원에 판매하고 다양한 푸드트럭 배치로 저렴하고 이색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콘텐츠로 구성된 여름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워터밤 페스티벌을 방문해 폭염 해소와 행복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우수작 초청 공연

뮤지컬 '판타지아' 30일 오후 7시

정읍시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우수작 초청 공연 뮤지컬 '판타지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뮤지컬 넘버들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으로, 34인조 코리안필하모니오라프 스코스트라의 무장한 사운드와 함께 최정상 뮤지컬 배우가 무대를 채운다.

이날 공연은 영화 겨울왕국의 '렛잇고',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순간',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이 연주되며, 카이, 김소향, 이아름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작품 속 캐릭터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연이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티켓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1인당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관람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창용 도슨트 토크콘서트

14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전주시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서 '관객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과 우진문화재단이 주관한 '인문학과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 토크콘서트 in 담양'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도슨트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대주제는 '영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이며, 이를 통해 반 고흐의 명화 탄생한 과정에서부터 고흐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우진청년작가회 제2회 우진청년작가 정기전이 열리며, 전시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라바', 무주에 온다

'라바 인 자연: 예술로 자연여행' 15일부터 최북미술관 일원서

전시 연계 체험 등도 진행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태권 라바 굿즈 나눔 이벤트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라바'가 무주에 온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 최북미술관 특별기획전을 통해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라바 인 자연: 예술로 자연여행'이 개최된다.

'라바'의 아트웍(Artwork)과 송지호,

엄수현, 장영애, 장동연, 황규리 등 지역 예술인의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라바' 전시 연계 체험인 '라바 요술나비 키트'와 '무주X라바 컬러링 엽서 2종'을 비롯해 '최북미술관X라바 포토부스' 등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31일~9월 8일)에는 무주군 지역 내 어린이집(300명 한정)대상 '무주군X투바엔 태권 라바 굿즈 나눔 이벤트'도 개최된다. 무주최북미술관 하이진 화에서는 '자

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와 무주반딧불 축제를 기념해 곤충캐릭터 '라바'를 소재로 자연과 무주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친숙한 라바가 전하는 재미있고 기발한 전시와 체험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인 (주)투바엔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과 콘텐츠 협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 전통 예술, 우리 삶 속으로'... 故 이건희 회장의 큰 뜻 되새긴다

국립전주박물관, 이건희 회장 기증 우리 옛 그림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12일부터 상설전시실 전시품 일부를 교체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큰 뜻을 되새기고자 이건희 기증품으로 구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2만여 점을 기증받았고, 2022년 소장품 등록을 완료한 후 전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건희 회장 기증품 중 2,000여 점을 전국의 10개 소속 국립박물관의 특성에 맞춰 이관해 상설전시 활용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가운데 채용신(蔡龍臣, 1850~1941), 최석환(崔奭煥, 1808~?) 등 전복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대중에 선보인다. 자연을 즐기고 배우고자 했던 선인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꽃과 새, 동물 그림(도1) 그리고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난초를 함께 그린 그림(도2)은 화려한 채색과 기품있는 묵향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고종어진 등을 그린 어진화사로 잘 알려진 '점주화원' 채용신이 그린 전우 초상(도3)은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피부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져 근대기 새로운 초상화 기법을 보여준다.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왕실실

1846년 전라감사 이시재(李時在, 1785~?)가 관련된 '승금정시회화첩(勝金亭詩會帖)'(도4)도 새롭게 출품된다. 승금정을 지은 전라감사 이시재는 전주 덕진 연못에 승금정(勝金亭)과 취소정(吹簫亭)을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

제 군수 조운시(趙雲始, 1787~?), 태인 현감 조석필(曹錫弼, 1802~?) 등 지역 수령들과 전주의 이름있는 문인 48명을 초청해 연회를 베풀면서 화공으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 그림은 중국 양회지의 '난정수계도'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 물길에 따라 인물들을 배치하여 흥미롭다. 시회화첩은 그림의 제목, 이시재의 서문, 모임 그림, 승금정 상량문, 취소정 상량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정기적으로 상설전시실의 전시품을 교체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새롭게 익힌 정보를 접하면서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한국적인 정체성'이 스며들 때 문화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우리의 전통 예술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하루하루 더 풍요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재훈 기자